



남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대표협의체 회의

남원시는 27일 남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일과 삶이 조화로운 도시 남원을 목표로 8개의 추진 전략 및 4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보건·복지,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 여가 등 사회보장분야 전반에 걸쳐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가 지난해 추진한 세부사업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 민관협력 정도, 시행 과정의 적정성, 시행 결과의 우수성 등을 반영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근무 지원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교육자 예방사업 △일상생활서비스 지원 등 3개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했다.

주민복지과 하은선 과장은 "시에서는 앞으로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지역복지 실현과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웬만해선 이들을 막을 수 없다!’

무주군 동계 꿈나무들, 동계체전서 전북자치도 획득 62개 메달 중 43개 획득

무주군 동계 꿈나무들이 제106회 동계체전체육대회에서 선전하며 전북자치도가 25년 연속 4위(금 15, 은 22, 동 25)에 오르는 데 기여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무주군청바이애슬론팀을 비롯해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노보드 종목의 선수 88명이 출전했으며, 다관왕에 이름을 올린 바이애슬론 종목의 무주중등학교 6학년 김민재 선수(금 3, 은 1, 동 1)와 안성중 2학년 송민주 선수(금 2, 은 1, 동 1), 스키알파인 종목의 최태희 선수(금 2, 은)를 비롯한 무주군 선수들은 지난 4일(22. 22~25), 은 15개, 동 17개, 총 4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바이애슬론에서만 총 31개의 메달(금 7, 은 12, 동 12)이



쏟아져 바이애슬로 최강자다운 면모를 뽐냈다.

무주군청 시설사업소 서종열 소장은 "우리 군에서는 무주군청 바이애슬론과 스키꿈나무 육성, 직장은동경기부 운영, 각종 스키대회 지원 등에 올해도 8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변함없이 동계스포츠 성취 무주의 자존심을 세우고 전북자치도의 자랑이 된 우리 선수들이 장차 대한민국의 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애슬론 종목의 김혜원(무주고 1학년), 박민용(무봉고 1년)선수는 지난 1월(1.19.~21)에 개최됐던 제1회 강원도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서 국가대표로 출전 세계 무대를 향한 경험을 쌓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명진 진안군의회 의원, 진안사랑 장학금 기탁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 이명진 의원이 27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준성)에 장학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이명진 의원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의 날개를 펼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자칫한 소중한 희망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진안군 의원으로서 사회적 활동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준성 이사장은 "활발한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진안의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기부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진 의원은 진안사랑장학재단과 모교인 부귀초와 부귀중에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2022년 진안군 제9대 군의원으로 당선된 후 인재 양성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활동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진안=유태만 기자

장상순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완주군 연합회장 취임

장상순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 제24대 회장이 취임했다.

27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에서는 이날 경천애인환성화센터에서 제22·23대, 제24대 회장 및 임원이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이훈주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 등 내빈과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임 장상순 회장은 올해부터 3년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를 이끌어간다.

임원으로는 임경호 수석부회장, 이문성 정책부회장, 강운성 사업부회장, 이경용 대외협력부회장, 정태성 사무국장, 송진섭 김대용 감사로 구성됐다.

장상순 제24대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농업인들의 권익향상과 후계농업경영인 조직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또한, 22, 23대까지 5년간 완주군연합회를 이끈 조인철 회장 이임식도 함께 진행했다.



조인철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5년간 뜻을 함께 해주신 임원 및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완주군 농업경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신임 장상순 회장님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아울러 지난 5년간 완주 농업발전을 헌신한 조인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정읍 황토현농협 농가주부모임, 대보름 반찬나눔

정읍 황토현농협(조합장 유형기)은 최근 정월대보름을 맞아 식사 준비가 어려운 관내 독거노인, 취약계층 84세대를 대상으로 찰밥 및 말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황토현농협 농가주부모임은 정월대보름에 직접 보름 음식준비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찰밥 버섯들깨탕, 김, 숙주나물을 준비해냈다.

취약계층 84가구에 정성 담은 음식을 손수 전달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연이어 내린 비와 떨어진 기온에 불편한 사정은 없는지 면밀히 살폈다. /정읍=김대환 기자



온정이 전북 여성단체협의회장, 김제시에 고향사랑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7일 온정이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온정이 협의회장은 김제시 봉남면 동령마을 출신으로 전북대 대학원 아동학과 석사를 수료하고 현재 제18대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및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북지회장, 상원리나유치원 원장을 맡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978년 창립 이후 35개 회원단체, 7만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전북자치도의 대표적인 여성단체협의체다.

과거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 여성운동의 선봉에 서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선구자적 리더십으로 전북 지역을 발전시켜 왔다.

온정의 회장은 "고향 김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김제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향을 떠나서도 김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향사랑기부제로 표현해주어 감사드리며, 고향사랑기부제가 김제 발전에 다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기부액의 30%는 담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시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6.5%의 세제혜택이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LX 전북본부와 지적 제조사 측량 위수탁 협약

남원시는 27일, 청사에서 2024년 지적제조사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북지역본부와 지적 제조사 측량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혜정 민원과장과 고삼규 지적제조사추진담당 및 실무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주 내용은 사업지구 토지현황 조사, 경계조정 및 협의, 경계점 측량 및 경계점 표시 설치, 측량성과물 작성과 더불어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다각적인 지원 약속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배치 등이다.

현재 남원시는 2024년 지적제조사사업으로 국비 7억4000만원을 확보해 5개 지구(수지·금지2·태평·효기·산내) 3,530필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위·수탁 협약을 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권혜정 민원과장은 "전문성을 갖춘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공경별 업무 분담 및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대강면, 사랑의 줌도로리 모은 백미 등 기증

남원시 대강면은 27일 남원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 서재석)와 MG새마을금고 정례식장에서 '사랑의 줌도로리'의 일환으로 모은 백미 48kg과 화장지 24세트를 면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남원중앙새마을금고는 매년 줌도로리운동으로 저소득 계층을 대상 백미와 생활용품을 대강면에 지원해 오고 있다.

서재석 이사장은 "줌도로리 운동은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떼어 그것을 모두 모아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상부상조의 운동이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손명엽·손을엽 형제, 장수군에 고향사랑 기탁

장수군 천천면 검덕마을 출신 손명엽, 손을엽 형제가 27일 오전 장수군청을 찾아 고향사랑의 마음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천천면 출신인 형 손명엽 씨는 군산시 소재 서광수출포장(주) 대표이사로 해병대 군산전우회 제20대 회장을 역임했고 동생 손을엽 씨는 한전주리아온스클럽 제40대 회장을 역임해 고향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2년 천천면민 의장 교향장을 수상했다.

이날 아버지 손병덕씨와 함께 군을 찾아 기부한 동생 손을엽 씨는 "고향 장수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기부금이 군과 장수군민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후식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주신 손명엽, 손을엽 씨 가족에게 감사드리며, 소중한 기부금으로 군민이 행복한 장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가족은 2022년에도 장수군에 2,200만원 상당의 성금을 기탁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장수=곽노태 기자



전북대 글로벌융합대, 한국부동산연구원과 협약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학장 허강무)은 지난 28일 한국부동산연구원(원장 안충환)과 감정평가 분야 연구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강무 글로벌융합대학장과 안충환 한국부동산연구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감정평가 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교류하고, 감정평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 연계 공동 연구과제 및 협력사업 개발에 적극 협력한다.

허강무 학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감정평가산업과 시장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 협력을 진행하는 등 상호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시스템을 갖춰 감정평가학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문성 기자



전주대, ESG 캠페인 캠퍼스 자연보호 행사

전주대학교 교직원 200여 명이 지난 28일 오후 대학 캠퍼스 및 주변 지역 일대에서 ESG 캠페인 캠퍼스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ESG 경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개강을 맞아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27일 전주대에 따르면 교직원 200여 명은 교내 캠퍼스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 구정문 상가 거리 및 속거마을 일대까지 범위를 확대해 쓰레기 줍기 등의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전주대 박진배 총장은 "ESG 경영의 핵심과제인 2050 탄소중립 추진 캠페인의 일환인 자연순환과 깨끗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장문성 기자



고창군, NH농협 제휴카드 적립기금으로 세입증대

고창군이 27일 오후 군수실에서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와 함께 고창군 제휴카드 적립기금(1억24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제휴카드 적립기금은 양 기관의 제휴카드 협약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고창군이 사용한 법인카드, 보조카드, 고창군 소속 직원이 사용한 복지카드의 이용실적에 따라 0.1%~1%의 비율로 적립된 금액이다.

NH농협은행은 최근 5년간 고창군에 6억6000만원의 기금을 전달했으며, 이 적립금은 그동안 군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왔다. 군은 앞으로도 자금 지출시 카드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세입 증대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